10. 숙종의 사망

숙종 46년(1720년) 6월 8일, 46년간의 긴 통치가 끝났다. 숙종이 경덕궁(지금의 경희궁)에서 59세의 나이로 승하하였다. 이해 음력 8월 15일이 회갑일이었는데 회갑을 채우지 못하였다.

임금의 병은 한 달 전부터 위중해져 4월 24일 궁중에서는 시약청(병 치료를 위한 임시 관청)을 설치하고 사망에 대비했었다. 사망하던 날 아침 일찍 도제조(都提調) 이이명(李頤命)과 사관이 급히 시약청으로 들어가니 연잉군(후일의 영조)이 "드셨던 약물을 모조리 토해 내셨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윽고 여러 신하가 침실로 들어가니 임금의 목구멍에서 담(痰) 끓는 소리가 크게 났다. 내시가 큰소리로 조정과 승정원과 홍문관이 문안드린다고 아뢰었으나, 임금이 알아듣지 못하였다.

연잉군이 관원들에게 조금 물러가 있으라고 하여 관리들이 물러나 기둥 바깥에 엎드려 있었는데 "궁녀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렸고 환시들도 눈물을 흘리며 몹시 바쁘게 다녔다."

중궁(인원왕후 김씨)은 임금의 가슴과 배에 온기가 남아 있으니 약물을 신중히 써서 기필코 회복을 기약하도록 하라고 마지막 희망을 붙들고 있었으나 임금은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사관은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전한다.

"내시 두 사람이 함(函)에다 강사 곤룡포(絳紗袞龍袍, 임금이 조정에서 신하의 하례를 받을 때 입던 붉은 옷)를 담아 대궐 지붕으로 올라가 세 번 주상의 존호(尊號)를 불렀다. 내시가 남쪽 작은 방에서 왕세자(王世子, 경종)를 부축하고 나와 갓과 비단 두루마기를 벗기고 머리를 풀어 곡을 하였다. 연잉군(영조)이 옷을 벗고 머리를 풀고 기둥 밖에서 곡을 했다. 대신 이하가 침실 문 밖에서 엎드려 곡을 했는데, 뒤죽박죽으로 질서가 없었다. 곡이 끝나자 영의정 김창집이 기록관에게 '상대점(上大漸, 임금의 병세가 위중함)'이란 세 글자를 써서 바깥뜰에 내다보이게 하였다. 이때 비가 퍼붓듯 크게 쏟아졌다."

『숙종실록』 부록에 숙종 대왕 묘지문이 실려있다. 거기에 율곡에 관한 언급이 한군데 보인다.

"왕은 경연의 자리에서 정자와 주자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을 피하였다. 문묘에 송나라 주염계·장횡거·이정(二程)·소강절·주자 등 육현을 정전(正殿)으로 올렸으며, 양무(兩廡, 문묘 안의 동무와 서무)에 있던 한나라 순황(荀況) 이하 열 사람을 내치고 송나라의 양시·나종언·이동·황간 및 우리나라의 이이·성혼·김장생을 배향할 것을 명하였다. 붓으로 친히 송시열의 화양서원(華陽書院)과 송준길의 흥암서원(興巖書院)의 편액을 쓰니, 현덕이 있는 이를 숭상하여 선비의 모범을 통일하기 위함이었다."

숙종은 살아 있을 때 남인과 서인 사이에서 흔들린 경우가 많았다. 남인에서 서인으로 서인에서 남인으로 정권을 바꾸면서 많은 신하를 고통과 죽음의 사지로 몰았다. 율곡과 우계

에 대해서도 문묘 배향을 허용했다가 또 어느 날에는 그것을 후회한다고 고백하고 남인의 주장을 따라 율곡과 우계의 학문을 비방하고 폄하하기도 하였다. 나중에는 다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문묘에 복향을 추진한 것도 숙종 자신이었다. 한때는 깊은 존경심을 표했던 송시열에 대해서도 갑자기 얼굴을 바꾸고 차마 들을 수 없는 모욕적인 언사를 마다하지 않았다. 송시열을 사약으로 처벌한 것은 차라리 가볍다. 하지만 묘지문에 나타난 표현은 다름이 아니라 숙종이 이 세상을 하직하면서 남긴, 참으로 진실한 마음이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 같다. 비록 숙종 자신이 쓴 글은 아니지만, 숙종이 경술환국 직후 신하들 앞에서 보여준 태도는 그것이 진실임을 방증한다.
「숙종대왕 행장」에 눈에 띄는 구절이 있다. 율곡의 문묘 종사와 송시열의 사사 처분에 관한 숙종 임금의 진실한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고백이다.

“지난 기사년(1689년 숙종 15년의 기사환국 때)의 일을 돌이켜 생각해 보건대, 나도 모르게 절로 마음속으로 부끄러움을 느낀다. (송시열·김수항 등 그때 고통당한 신하들의) 진실하고 정성스러움을 잘 살피지 못하고 어진 보필을 잘못 의심하여, 급기야 은혜와 예절이 쇠하고 답답한 마음을 펴지 못하게 되었다. 내가 일찍이 깊은 밤중에 가라앉은 마음으로 찬찬히 궁구하던 끝에 환히 깨닫고 크게 후회하면서 자나 깨나 고민해 온 지 어언 몇 년이 되었다. (중략)
두 현신(율곡과 우계)의 도학(道學)을 내가 모르는 바 아니나, 처음에 올바른 사람을 해치는 무리들에게 속고 가려져 문묘에서 출향(黜享)시키기에 이르렀으므로, 내가 항상 뉘우치고 한스럽게 여겨 왔다.”